

고딕소설 속에 나타난 숭고미의 표현 -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를 중심으로

류다영*

¹중원대학교 교양학부

The Expression of Sublime in Gothic Novel - William Faulkner's *A Rose for Emily*

Da-Young Ryu*

¹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약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숭고하다는 표현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아름답다는 것과 숭고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며 숭고의 대상은 따로 존재한다. 숭고론은 롱기누스를 시작으로 버크, 칸트에 이르기까지 개념과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숭고미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공포감 속에 숭고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딕소설로 분류되는 『에밀리를 위한 장미』에 표현된 숭고미를 고찰해보았다. 작품 속에 묘사된 에밀리의 칙칙한 철회색 머리카락과 붉은 피를 상징하는 빨간 장미, 그리고 그녀의 검은 옷은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의 숭고미를 표현하며, 떠난 호머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에밀리의 모습, 마지막으로 숨진 채 누워있는 호머의 모습 자체는 공포의 분위기를 일으킴과 동시에 비극적 숭고함을 보여준다. 고딕소설 뿐 아니라 모든 문학 장르에서 숭고함의 표현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여러 문학 분야에서 숭고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Abstract We are accustomed to using the word 'beautiful' when we see something, but we don't use the word 'sublime' very often. In fact, these two words have totally different meanings and we can say 'sublime' only for special objects. The notions and objects of sublime have been studied by numerous philosophers ranging from Longinus to Burke and Kant. According to their studies, we can feel sublimity from objects which give us fear, because the sublime is inherent in fear.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sublime in the gothic novel, *A Rose for Emily*, in which we can find solemn sublimity in Emily's iron gray hair, her black suit, and a red rose which stands for blood. In addition, we can feel sublimity in the image of Emily who is waiting for Homer and the image of Homer's dead body. These kinds of images instill us with fear, but also show us tragic sublimity. The sublime exists in all kinds of literature and, therefore, more studies and analyses of the sublime in literature will likely be conducted.

Keywords : A Rose for Emily, Gothic novel, Horror, Fear, Sublime, William Faulkner

1. 서론

‘숭고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숭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익숙하다. 하지만 숭고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아직 어색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대상과 숭고하다고 느끼는 대상은 다르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둘 사이에 차이를 두고 각각의 단어를 사용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숭고(崇高)라고 부르는 대상은 따로 존재한다. 대부분 종교적이거나 예술적인 용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 (Jungwon Univ.)

Tel: +82-43-830-8651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February 25, 2016

Revised (1st March 24, 2016, 2nd April 20, 2016)

Accepted May 12, 2016

Published May 31, 2016

어로 사용하는 이 숭고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의 고양된 모습을 주로 묘사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 특히 미학적 용어로 사용될 때 숭고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독특한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숭고론이 독립적인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은 롱기누스(Cassius Longinus, 217-273)에 의해서인데 그에 따르면 숭고는 ‘매우 고매한 진실이 전달되는 정신’이다[1]. 이후 숭고는 서구미학의 한 부분으로 오랫동안 종속되었는데, 근대의 사상이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에 의해 개념이 좀 더 명료해졌다. 버크는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1757)에서 숭고의 감성을 일으키는 대상을 연구함과 동시에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상태를 고찰하였다. 이어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1790년 출간된 『판단력 비판』(*Critique of Judgement*)을 통해 대자연의 압도적 위력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경외의 감정과 연결시키며 숭고에 대해 논의하였다[2].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감정과 상황 속에서 숭고미와 감정을 찾아 볼 수 있는 짧지만 강렬한 작품으로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1897-1962)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A Rose for Emily*)[3]을 들 수 있다. 윌리엄 포크너는 남북전쟁 전후라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배경을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인정받아왔는데, 이러한 평가는 포크너 작품의 주제가 현존과 부재, 시간, 삶과 죽음, 개인과 사회, 인간 소외, 정체성 탐구, 성과 인종 문제와 같이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실존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중 『에밀리를 위한 장미』에 대한 초기 비평가들의 견해는 공포나, 탐정 이야기, 고딕소설 등으로 단순화시킨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에밀리가 저지른 살인과 시체성애(necrophilia)의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 그 이상이고, 공포와 사랑이 맞물려 나타나며 결국에는 숭고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숭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에밀리를 위한 장미』에서 숭고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숭고의 개념과 논의

‘숭고’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뜻이 높고 고상함’을 의미한다[4].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숭고란 우선 내용면에서 볼 때 무한한 크기나 위대함을 말하며,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을 현세적이고 유한한 존재의 한계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표상하거나 예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1 롱기누스의 수사학적 숭고

숭고를 미적인 범주로 포함시켜 심도 있게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논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롱기누스의 「숭고에 관하여」(*On the Sublime*)이다. 하지만 실제 이 논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고, 이 논문이 A.D. 1세기에 쓰여졌다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하지는 않으며 논문도 일부분만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롱기누스의 숭고론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은 17세기의 보알로(Nicolas Boileau, 1636-1711)이다. 그는 롱기누스의 논문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덧붙였다[5]. 롱기누스는 주로 언어현상, 즉 수사학에 초점을 맞추어 숭고에 대해서 설명한다. 롱기누스가 다루는 수사학은 말과 글에서 나타나는 문체를 말한다. 말과 글의 문체는 정치적인 연설문뿐만 아니라 철학적 산문과 서사시와 서정시, 그리고 비극을 모두 포함하는 문학작품, 그리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서술의 형식에 관계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종교적 경전까지도 문체론적 비평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종류의 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문체의 보편적 기준으로 롱기누스는 말과 글의 숭고함을 말하고 있다[6].

롱기누스는 그의 책에서 숭고미에 대해 “숭고미란 표현에서의 어떤 차이와 훌륭함이며, 가장 훌륭한 시인들과 작가들이 그들의 기량에서 뽑아내 얻은 불멸의 명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숭고를 “언어에서의 탁월함과 우수함”이라 규정한다. 그는 숭고한 문체의 다섯 가지 원천을 정의하였는데, 첫 번째는 큰 생각들을 포착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강하고 격렬한 격정, 세 번째는 생각과 어법을 적절히 다루는 것, 네 번째는 고상한 어법, 다섯 번째는 위엄 있고 고양된 작문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원천들 중에서 처음의 두 가지는

타고난 소질이요, 나머지 세 가지는 교육과 훈련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다. 그러나 롱기누스는 비록 자연적 원천을 지니는 것이라 하더라도 “영혼을 교육하여 고상한 재능으로 충만하게 해야”함을 강조함으로써 영혼의 지속적인 도야를 강조한다[1].

숭고한 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생각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바로 여기서 롱기누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작가의 정신의 크기인데, 이것이 곧 정신의 숭고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숭고는 정신의 위대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글이 숭고하다고 말하는 것은 작가의 정신과 생각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여기서 롱기누스가 숭고한 글의 조건으로 다른 수사학적 기법보다 작가의 정신적 능력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칸트가 정의한 숭고 개념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2.1.2 버크의 심리학적 숭고

숭고에 대한 미학적 연구가 17, 18세기에 유럽에서 꽃 피우게 된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에드먼드 버크이다. 그때부터 ‘숭고’라는 개념은 광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감정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버크는 숭고를 일반적인 미학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미학적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버크는 자신의 저서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아름다움과는 구별되는 숭고의 미학에 대해 철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버크는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미와 숭고를 구분하여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나갔다. 이런 점에서 버크가 정의한 숭고의 미학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숭고와 결합시켜 나갔으며 이를 통해 예술적 경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버크에 따르면 숭고는 고통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미와 숭고를 구별하는 버크의 이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쾌(pleasure)와 환희(delight)를 구분하였고, “고통이나 위협의 제거에 그 기원을 갖지 않는” 것에는 ‘쾌’를, “고통이나 위협의 제거에 수반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환희’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하였다[7]. 따라서 환희는 쾌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숭고와 관련된 감정은 쾌이기 보다는 환희이다. 환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숭고하며, 버크에게 있어서 숭고의 감정이란 고통과 위협의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감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숭고의 감정은 자기 자신을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기보존(self-preservation)’과 관련이 있으며, 버크는 이러한 자기보존의 관련 속에서 숭고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숭고한 감정은 가장 생산적이며 강렬한 감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숭고의 감정은 절대적인 공포도 아니다. 고통이나 공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느끼는 진짜 고통과 공포는 숭고의 감정으로 될 수 없다. 오히려 문학이나 상상을 통해, 혹은 여러 가지 완화장치들(modifications) 통과한 고통이나 위협, 또는 공포여야 한다.

버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많은 관념들은 그것이 고통을 주든지 쾌의 감정을 주든지 모두 ‘자기보존’과 ‘사회성(society)’의 두 항목으로 환원된다고 한다[7]. 여기에서 전자와 관련된 것이 ‘숭고’이고 후자와 관련된 것이 ‘미’이다. 그런데, 고통과 위협과 같은 자기보존에 속해있는 감정은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에만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처해있지 않고 고통과 위협의 관념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환희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즉, 우리가 위협이나 고통에 가까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경우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을 때는 환희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고통과 공포의 감정을 환희의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이다. 즉 거리가 없을 때 숭고의 감정은 생겨날 수 없다. 그러나 버크의 이러한 분석은 동시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숭고가 본질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과 연관된다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생경한 것이었다[5]. 이러한 버크의 숭고론은 『판단력비판』에서 분석되고 있는 칸트의 숭고론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숭고의 감정을 적극적 쾌의 감정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한 소극적, 부정적 쾌의 감정으로 본 것에서 그러하다.

2.1.3 칸트의 경험론적 숭고

버크 이후로 숭고미에 대한 논의는 영국에서보다 독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칸트라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세 번째 비평서인 『판단력비판』에서 미뿐만 아니라 숭고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버크에 이어서 칸트도 일반적인 아름다움과 숭고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칸트에 따르면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인식에 대한 대상의 함목적적 형식에 의거하고 생명을 축진하는 직접적인 감정을 동반하는 반면에, 숭고한 것의 감정은 형식이 없는 무형식의 따라서 비목적적이라고 판정되는 대상에 대한 지각에 근거한다고 한다. 이러한 숭고의 감정은 대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관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8].

칸트는 진정한 숭고의 감정이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숭고를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수학적 숭고는 대상을 양적 크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숭고하다고 부르는 대상은 무한하게 큰 것으로 표상되고 따라서 절대적 총체성의 이념을 환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역학적 숭고는 관계범주와 양상범주에 따른 숭고 규정을 말하며, 대상의 힘의 크기가 관건이 된다. 즉, 역학적 숭고는 대상의 힘의 크기가 무한한 것처럼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칸트에 의하면 자연계는 심미활동 면에 있어서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에게 강제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역학적 숭고가 된다고 하였다. 만약에 자연계가 역학적 숭고를 판단한다면, 자연계는 반드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표상한다고 생각해왔다. 여기에서 심미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저항력의 크기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재난을 견딜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계의 위협은 반드시 일정한 거리로 유지되어야한다. 이것은 버크가 고통과 공포의 감정을 환희의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둠이라고 말한 내용과 상응하는 부분이다. 자연계의 위협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야기 시키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지 않을 때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고, 따라서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칸트는 진정한 숭고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숭고함에 내재되어 있는 공포의 가치는 사람에게 자연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희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숭고는 외부적인 것에서 내부적인 것으로, 객체에서 주체로, 필연적인 것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바뀔 때 동시에 고통에서 쾌감으로 변환된 것이다. 칸트의 철학 중에서 ‘미는 도덕의 상징이다’라고 한다면, 숭고는 그야말로 도덕 그 자체이자 인간 그 자신인 것이다. 따라서 공포소설을 통한 심미경험은 숭고의 심미경험과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점은 숭고는 순수한 형식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어서 반드시 두려움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로테스크한 사물에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혐오감이 없다[9].

2.1.4 숭고의 문학적 논의와 의의

숭고미에 대한 논의는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되었는데, 그 동안 회화, 디자인, 건축물과 같은 시각적인 예술 분야에서 더 많이 논의가 되어 왔다. 최근 숭고미에 대한 연구는 그 분야가 확대되어 광고나 영화에서도 숭고에 대한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있으며, 소설이나 시 등 문학 작품을 숭고미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재복[10]은 박경리의 『토지』를 작가의 생명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숭고미를 연구하였으며, 이연승[11]은 유치환의 시를 분석함에 있어서 미학적 특성을 숭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김점용[12]은 이육사의 시를 연구하면서 숭고의 양면성, 즉 불쾌와 쾌, 고통과 환희, 불안과 안심, 부정과 긍정 등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영문학적으로는 밀턴의 『실락원』에서의 사탄의 숭고미를 분석한 논문[13]이 있으며, 애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서 숭고미와 타자성에 관해 논의한 연구[14]가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의 숭고미를 논한 연구는 서사적인 장편소설이나 아름다운 시의 미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공원희[9]가 공포영화의 유열 연구를 하며 공포적인 요소와 숭고미에 관하여 짧게 언급 하긴 하였지만, 공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소설 작품 자체를 분석한 논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고딕소설에서 숭고적인 요소를 찾고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가 앞으로도 공포소설이나 공포영화에서 숭고미를 고찰을 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서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2 『에밀리를 위한 장미』에 나타난 숭고미

2.2.1 공포적 요소의 숭고미

공포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극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다[4]. 그리고 공포소설은 ‘독자에게 충격과 공포, 혐오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허구적 서사양식. 죽음, 사후세계, 형벌, 어둠, 악, 폭력, 파괴 등의 초월적인 세계에 깊

은 관심을 보이며, 고통, 두려움, 광기 등의 비일상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문학 장르이다[15].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신비스럽고 괴기스러운 이야기는 존재한다. 세계의 오래된 신화나 전설에는 예외 없이 사악한 영혼과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괴담, 전설들이 한 장르의 문학으로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등지에서 유행했던 고딕(Gothic) 소설에서부터라는 것이 정설이다. 고딕소설은 중세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럽 낭만주의의 소설 양식의 하나이며, 고딕소설이란 명칭은 중세의 건축물이 주는 폐허스러운 분위기에서 소설적 상상력을 이끌어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딕소설은 오싹하고 소름끼치는 공포와 미스터리 이야기를 담고 있다[16].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딕소설의 창시자로 알려진 호러스 월폴(Horace Walpole)의 『오트랜토성(Castle of Otranto)』, 매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어셔가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등이 있다. 그 이후 "고딕"이라는 용어는 중세적 배경이 없지만 어둠이나 공포가 깔린 분위기를 자아내고 무시무시하고 섬뜩하며 멜로드라마처럼 격렬한 사건들을 묘사하기도 하고 이상 심리 상태를 다루는 소설 유형으로 확대되었다[17]. 버크는 공포(fear)만큼 마음에서 모든 작용과 추론의 힘을 앗아가는 것도 없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공포란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므로 실제의 고통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포의 그러한 원인이 규모의 광대함에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해도, 시각적으로 무시무시한 것은 무엇이든지 숭고하다[7].

공포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구체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18]. 하지만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포적인 일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하다. 아무리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도 현실의 안전함이 보장된 상태에서 겪는 공포는 이완과 긴장을 순식간에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포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는 자신이 현재 처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어 일종의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끼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공포소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문학의 한 장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공포영화나 공포소설은 우리들의 무의식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고 괴기스러움을 느끼도록 자극하는 공포영화나 공포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기시 되어 있는 살인, 파괴 등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공포소설이나 공포영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나 소설은 가상현실로 인위적인 공포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인간 내부에 있는 살인심리, 파괴심리를 대체 해소하는 쾌감이자 쾌락의 대상인 것이다[18].

버크는 그의 책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숭고가 '공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버크는 숭고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감정을 "경악"(astonishment)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감정이 바로 공포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공포는 고딕과 숭고의 관계의 범주에서 공유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딕소설이 형식화되고 규격화된 사회적, 문화적 틀을 벗어나거나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문학적 조건을 드러내려 한다면, 고딕소설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무한한 상상력의 발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은 공포와 더불어 고딕이 숭고와 접목되는 공통된 연결점으로 또한 제시 될 수 있다. 숭고도 현실에 대한 "무한계성"(limitlessness)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7].

칸트는 '숭고함의 원천이 공포'라는 버크의 이러한 상상을 계승하였다. 칸트는 자연이 우리들에게 숭고하다고 평가되어야만 하지만 동시에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상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용감한 기개로써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공포의 대상을 억눌러야 한다.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의 숭고함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부터는 절대 쾌감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압감 속에서 풀려나온 흥가분함은 윤택함의 일종이라고 하였다[8].

1930년에 발표된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감성적인 소설인 동시에 역시 음산하고도 소름끼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포소설임이 분명하다. 제목만으로는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유추되지만,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인한 살인과 살인 후 40년간 시체와 동침을 하는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일어난다. 대다수의 독자는 이러한 기괴스러운 그녀의 사랑법에서 사랑의 숭고함 보다는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숭고에 관련한 논문은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에서 그 의미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과 기이한 사랑 관계에서도 숭고함이 깃들여 있다. 이에 다른 소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 특이한 사랑에 관한 『에밀리리를 위한 장미』에서 숭고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남북 전쟁에서 패전한 남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윌리엄 포크너는 남부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로 주인공 ‘에밀리(Emily Grierson)’라는 인물을 설정하였고, 에밀리를 통해 무너져가는 남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부지역 사람들이 에밀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에밀리’라는 존재는 우리러보는 존경의 대상이기도 한 동시에 어둡고 음침하고 우울한 존재로 결국에는 사라져야할 모습이었던 것이다. ‘에밀리’라는 존재 이외에도 빨간 장미의 붉은 색깔은 핏빛을 연상시켜, 에밀리가 호머(Homer Barron)를 살해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한다. 버크는 부드럽거나 유쾌한 색은 웅장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숭고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재료나 장식품에 흑색, 갈색, 짙은 자주색과 같은 칙칙하고 어두운 색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밀리의 철회색 머리는 엄숙한 분위기, 악, 불행, 죽음 등을 의미하며, 또한 숭고함을 표현한다.

우리가 다음에 에밀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살이 쪼고 머리가 세기 시작했다. 그 뒤 몇 년 동안 머리는 점점 더 희끗희끗해지더니 마침내 후춧가루에 소금을 섞은 것 같은 고른 철회색 상태에 도달하자 그때부터 더 이상 세지 않았다. 일흔넷의 나이로 죽는 날까지 그녀의 머리는 정력적인 남자의 머리처럼 여전히 그런 원기왕성한 철회색이었다[3].

에밀리의 저택의 굳게 닫힌 정문, 어두운 이층방, 집 전체를 지배하는 먼지와 축축한 냄새는 정상적인 인간 세계의 빛에서 분리되어 마치 습기 찬 벽에 붙어 있는 곰팡이와 같은 느낌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악취사건. 과거에 마을에서 가장 웅장했던 그녀의 집에서 나는 악

취는, 그녀가 몰락했음을 광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웃들은 읍장인 스티븐스 판사(Judge Stevens)를 찾아가 불평을 털어놓지만, 처음에 스티븐스 판사는 “악취가 그 집의 검둥이가 마당에서 죽인 뱀이나 쥐의 냄새일 것”[3]이라며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한다. 계속되는 불평으로 인해 참사회가 공식적으로 소집되고, 제퍼슨의 젊은이들은 법률에 기초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결국 다음날 자정쯤 네 명의 청년이 몰래 그녀의 집 주위에 석회를 뿌리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건이 해결된다. 버크는 냄새와 맛은 장대함의 관념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성질들은 작고 미약하며 그것이 작용하는 때만 한시적으로 효과를 낳는다. 엄청난 쓴맛이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를 제외하면, 장엄한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냄새나 맛은 없다고 하였다. 그는 냄새와 맛이, 설명이나 기술처럼 적절하게 완화될 경우, 완화된 고통의 원리에 따라 진정한 숭고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악취를 풍기는 다른 이미지들과 매우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밀리의 저택에서 나오는 악취 또한 숭고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에밀리의 모습에 대한 묘사에서도 숭고함을 찾아볼 수 있다. 참사회 대표단이 처음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에밀리의 모습은 “고여 있는 물 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는 시체처럼 부어있고, 창백한 빛깔”[3]로 묘사된다. 이어지는 3장에서 아버지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아팠던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교회 색 유리창의 천사들을 닮은 모습”[3]으로 약간은 비극적이고 고요해 보인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작고 살찐 여자로서 ... 그녀는 고인 물 속에 오랫동안 잠긴 시체처럼 부풀어오른 듯이 보였고 피부색도 그런 핏기없는 색조였다. 방문객들이 용건을 말하고 있는 동안 이 얼굴 저 얼굴 돌아보는 그녀의 두 눈은 얼굴의 지방질 살집에 파묻혀 마치 밀가루반죽 속에 박아놓은 두 조각의 작은 석탄처럼 보였다[3].

비록 그 고요함이 부분적으로는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현실의 삶을 초월한 천사와도 같이 위엄을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느낌을 준다. 또한 에밀리가 약국에서 비소를 주문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얼굴은 마치 불빛을 자신에게 비추지 못하고 끝없이 어둠을 응시하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등대지기’를 떠오

르게 한다. 그녀는 비소의 종류와 범람이 요구하는 용도를 물어보는 약사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팽팽한 깃발과 같은 얼굴”[3]로 노려볼 뿐이다. 상대방을 압도하는 모습은 그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녀가 숭고한 대상임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에밀리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화자의 압축적인 묘사 이후,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층 방이 마침내 외부에 공개된다. 빛바랜 장밋빛 커튼과 장미 모양의 깃이 달린 전등, 그리고 연인의 옷과 신발 등으로 꾸며져 있었고, 주민들의 시선이 침대로 옮겨가면서 숨진 채 누워있는 호머를 발견한다. 에밀리의 욕망의 대상이었던 호머는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패하고 무력한 몸”으로 묘사되고, 그의 죽음은 에밀리의 내적 갈등과 고통이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9]. 단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민들은 호머의 시신 옆에 놓인 두 번째 베개 위에 머리가 움푹 들어간 자리를 발견하고, 그들 중 한명이 “철회색의 긴 머리카락”을 들어올린다.

그런 다음 우리는 두 번째 베개에 머리에 눌러 들어간 자국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거기서 뭔가를 들어올렸다. 몸을 앞으로 수그리자 어렴풋하고 보이지 않는 메마른 먼지가 코를 톡 쏘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철회색의 긴 머리카락 하나를 보았다[3].

이 마지막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비로소 단편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며, 지금까지 지연된 공포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이 마지막의 비극적인 장면은 쉘리가 말하는 ‘비극적 숭고함’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20].

2.2.2 기다림과 사랑의 숭고성

그리움은 등장인물이나 화자가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내적갈등이다. 이 그리움은 등장인물이나 화자에게는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진다. 이에 대항하는 방법은 그 대상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데 이 기다림의 자세는 숭고함을 만든다. 상상력은 등장인물이나 화자가 ‘왜 그리워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정서에서 생기는 ‘불쾌’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작동한다. 등장인물과 화자의 기다림과 그에 동반한 행위들은 ‘불쾌’한 이미지를 만들고 불쾌한 이미지는 상상력을 통하면서 ‘쾌’로 변하게 되는데 이 반전의 과정에서

숭고함이 나타난다[21].

에밀리가 떠난 호머를 기다리며 그리움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움과 기다림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고 기다림을 운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다림보다 더 큰 공포에 대한 대응방법인데 기다림보다 더 큰 공포는 에밀리의 내면에서 대상의 소멸, 즉 대상을 잇는 것이다. 등장인물에게 그리움과 기다림의 고통은 대상을 아직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대상을 떠올리는 것은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이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대상의 소멸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살고자 하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준다.

그들이 잔디밭을 다시 가로질러 나갈 때 어두웠던 창문에 불이 켜지자 에밀리가 창가에 등불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깨끗한 상체는 우상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3].

에밀리의 기다림의 끝은 죽음이었다. 죽음에 관한 상상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공포 중 하나인 어둠에서 기인한다. 완전한 암흑 속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태는 한 걸음만 내딛으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과 비슷한 위협으로 죽음을 연상시킨다. 에밀리의 비소 구입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는 호머를 독살하기 위한 것이며, 약취 사건은 그의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였고, 그 약취를 없애기 위해 마을 청년들이 그녀의 집 주위에 석회를 뿌릴 당시 창문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호머가 처음 제퍼슨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머리가 짧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철회색의 머리카락과 그 길이는 아마도 호머가 죽어가는 순간이나 심지어 죽은 이후에도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에밀리가 침대에서 그를 안고 있었거나 함께 누워 그를 기다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19]. 에밀리의 사랑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랑이며, 비극과 숭고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비극은 인간의 유한성이 부각되는 것과 함께, 인간이 추구하는 장엄한 무한성도 그 못지않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숭고미의 구

조를 취한다”[22]라고 하였으며, 쉴러는 “비극이란 인간 의 이중적 본성의 갈등을 보여주어야 하는 바, 격정적인 동시에 숭고해야 한다”[23]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결국 그를 죽여서라도 함께 있고자 했던 에밀리의 사랑의 정신 또한 숭고함을 보여준다.

3. 결론

현대 미학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단순한 ‘미’가 아니라 ‘숭고’이다. 예술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왜 ‘미’가 아니라 ‘숭고’를 문제로 삼는가는 우리 앞에 놓여 우리는 규정하는 ‘틀’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소박한 미학 이론을 넘어서 역사적·사회적 지평의 담론으로까지 확장 가능한 것이 숭고론의 장점이다. 하지만 숭고론이 본격적인 담론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아직까지 숭고에 대한 문학적 논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숭고미가 문학작품을 새롭게 조명하는 하나의 해석틀일 될 수 있다는 제시를 함과 동시에 고딕소설에서 숭고미를 찾아볼 수 있음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논의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숭고미를 분석하기 전에 숭고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숭고미의 개념에 대해서는 롱기누스, 버크, 칸트가 말하는 숭고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에밀리를 위한 장미』에서 보여지는 숭고미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는데, 크게 공포적인 요소에 관한 숭고미와 기다림과 사랑에 관한 숭고미로 나누어 논하였다.

고대에는 롱기누스가 숭고를 수사학과 문체상의 특성으로 연구하면서 주체의 정신적 능력과 숭고한 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연구는 사장되다시피 미학사의 한 부분으로 묻혀 있었다. 그러다가 버크의 등장으로 인해 숭고가 하나의 미학적 범주로 다루어지면서 숭고에 대한 근대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버크에 따르면, 미와는 달리 숭고는 고통과 연관된 감정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제거됨으로써 수반되는 감정이 바로 숭고이다[5]. 버크와 함께 영국의 경험주의적 미학자인 샤프트베리(Shaftesbury)가 숭고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이후 독일 관념철학자들인 칸트와 헤겔로 숭고미의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칸트의 숭고 개념은 쉴러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그는 숭고의 본질을 극단적인 전율로 인해 나타

나는 슬픔과 기쁨의 혼합된 감정으로 이해하였다[24]. 현대에 와서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정신을 숭고미와 연관시켜 숭고 미학에 대한 버크와 칸트의 작업이 예술적 실험이 가능한 세계의 윤곽을 잡아 놓았고, 훗날 야방가르트가 자신들이 나아가길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하였다[25].

버크와 칸트는 ‘숭고함의 원천이 공포’라는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에밀리를 위한 장미』는 음산한 분위기에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면에서 공포소설임이 분명하다. 버크는 숭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둡고 칙칙한 색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에밀리의 철회색의 머리색이나 붉은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장미, 그리고 그녀의 검은 옷 등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숭고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밀리 저택의 먼지와 축축한 냄새, 또한 악취는 성질이 미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장대함의 관념을 공유하며, 이는 숭고함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밀리의 죽음 이후,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층 방이 마침내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 숨진 채 누워있는 호머의 모습 자체는 그 동안 지연되었던 공포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또한 비극적 숭고함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자세에서 숭고함을 찾아볼 수 있는데, 떠난 호머를 기다리는 에밀리의 모습에서 그러한 숭고를 느낄 수 있다. 에밀리는 그리움이 주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는 호머를 독살한다. 따라서 그녀의 기다림의 결말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녀의 기다림의 모습에서 그녀는 호머와의 해후의 모습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다림의 고통이 가져오는 ‘불쾌’는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쾌’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숭고함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이러한 결말 또한 비극적 숭고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딕소설에 속하는 작품 중 『에밀리를 위한 장미』에서 비극적인 숭고함과 숭고적 표현을 분석하였으나, 숭고함의 표현은 모든 문학 장르에 존재하므로 앞으로 여러 문학 분야에서 숭고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숭고적 표현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숭고미라는 미학의 범주가 실제 문학과 독자에게 어

떠한 방식으로 소통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Cassius Longinus.(translated by Myung Bok, Kim) On the Sublime. Yonsei University Press, 2002.
- [2] Me Ryong Choi. "A Study of Sublime in works of Bill Viola", Cultural Contents Studies, Vol.- No.5, pp.7-44, 2015.
- [3] William Faulkner. A Rose for Emily. Tale Blazers, 2007.
- [4]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 Grand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Eomungak, 1992.
- [5] Ji Yeon Park. "The Concept of 'the Sublime' in Kant and its adaptation in art", Mater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2001.
- [6] Sang Bong Kim. "Der Begriff des Erhabenen bei Longinus",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Vol.9 No.-, pp.201-228, 1995.
- [7] Edmund Burke.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8] Immanuel Kant. Critique of Jud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9] Yuan Zhao Gong. "A Research on the Pleasure of Horror Movies", Master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 [10] Jae Bok Lee. "The Sublime in Park Kyoung-Ni's 『Toj i』",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9, pp.363-396, 2013.
- [11] Yun Seung Lee. "A Study on the Sublime of aesthetics on the Yu-Chi Hwan's poetry", The Studies on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56 No.-, pp.235-263, 2013.
- [12] Jeom Yong Kim. "Sublime in Yi Yook Sa's Poems", The Korean Poetics Studies Association 10, pp.1-14, 2006.
- [13] Dae Joong Kim. "Understanding of the Satan's Sublimity Revealed in Milton's Paradise Lost",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Vol.3 No.2, pp.267-294, 2010.
- [14] Ah Reum Joo. "Edgar Allan Poe: Sublime and Otherness", Masters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5.
- [15] Sang Seop Lee. A Dictionary of Literary Criticism. Minumsa, 1995.
- [16] Yong Hwan Han. Dictionary of Novels. Moonye Publishing, 1999.
- [17] Gwang Yo Kim, Jin Gwon Park, Seong Geun Hwang, Yong Sang Ryu, Jong Dae Kim. Drama Dictionary. Moonyelim, 2010.
- [18] Young Long Kim. "Analysis of the Horror Novels: Factors that Cause Fear", Masters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Inha University, 2012.
- [19] Jong Moon Lee. "An Initiation into the Yoknapatawpha World = A Study of A Rose for Emily", American Cultural Studies, Vol.6 No.2, pp.263-285, 2006.
- [20] Soo Yong Kim. The aesthetics of beauty and essay on art of sublime. Akanet, 2009.
- [21] Chan Haeng Lee. "A Study on 'sublimity' of Lee Dong-Ju's Poetry", Masters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2012.
- [22] Terry Egleton(translated by Daewon Bang). Aesthetic Ideology. Hansin Munhwasa, 1994.
- [23] Jerome Schiller. "An Alterantive to 'Aesthetic Disinterestednes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22 No.3, pp.295-302, 1964. DOI: <http://dx.doi.org/10.2307/427233>
- [24] Seong Chan Ahn. Aesthetics of the Sublime. Euro Publication, 2004.
- [25] Jean Francois Lyotard(translated by Hyunbok Lee). The Postmodern Condition. Seogwang-sa, 1992.

류 다 영(Da-Young Ryu)

[정회원]



- 199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영 어영문학과 (문학사)
- 200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 대학원 영어교육 (교육학석사)
- 2013년 9월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영 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희곡, 영어교육, 문학치유